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48호 [부제 제25491호] 주제 105 (2016)년 12월 13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자력갱생의 창조물인 원산군민발전소를 현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자력갱생의 창조물인 원산
군민발전소를 현지도하시
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
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봉해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
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인 오수용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용수 동
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용원 동지가 동행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들
현지에서 조선로동당
강원도위원회 위원장
박정남 동지를 비롯한 도
와 발전소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먼저
거창하게 솟아오른 원산군민발전소
언제에 오르신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강원도인민들이 불굴의 정신력의 창조
자, 자력갱생의 선구자의 영예를 안고
세상이 보란듯이 일떠세워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선물로 드린 원산군민발전
소는 서해로 흐르는 강물을 동해로 돌려
락차고를 조성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규모가 큰 류역변경식수력발전소이다.



전망이 열리었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산군민발전소의 언젠
를 찾아오면서 보니 정말
산세가 험하였다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원도인민들
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시려고 얼마나 마음쓰시
였으면 이런 곳까지 오시
였는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들었다고, 이 발전소는
장군님의 체위가 그대
어려있는 유복지발전소,
우리 장군님의 애국념,
강국념원이 깃든 발전소
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강원도의 일군들, 당원
들, 근로자들이 자기들에게
온갖 덕을 안겨주시려고
늘물겨운 헌신과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
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
으로 가슴을 불태우며 수명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발전소의
언제와 물길줄, 발전기설위치도 잡아
주시고 천히 <원산군민발전소>라는
이름도 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헌신과 인민사랑의 체위가 뜨겁게
깃들여있는 원산군민발전소건설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공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의도를 피
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산악같이 펼쳐
입어난 강원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수십km의 물길굴뚝기와
근 200여만㎡의 언제쌓기, 수천m의
압력관로공사와 발전기설건축공사 및
설비조립공사, 전력망계통공사, 발전소
종업원들을 위한 100여세대의 살림집
건설을 비롯한 방대한 발전소건설공사
들 도자체의 힘으로 완공하는 자랑스
런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푸른 물
출렁이며 끝없이 펼쳐진 대인공호수를
바라보시면서 멋있소, 대단하오, 하자고
결심한 사람의 정신력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되오, 대자

연을 마음대로 길들이는 우리 인민의
창조적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하오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산군
민발전소가 완공됨으로써 도의 경제발
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전력과
주민생활용수, 공업 및 관개용수문제들
보다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었을뿐아니라 이 지역
의 자연풍치를 더욱 아름답게 변모시
킴으로써 강원도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그토록 마음쓰시던 위대한 장
군님의 념원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방대한 발전소건설을 도
자체의 힘으로 완공하는 자랑스러운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고 말씀하시
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과 혈연
의 정을 맺고 사는 강원도인민들이
우리 장군님께 드리는 총정의 선물인
원산군민발전소의 대인공호수에 출렁
이는 푸른 물은 강원도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샘줄기로 영원히 뜨겁게 흘러들
것이라고 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